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직전 보강



선생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 두어야 할 게 뭔가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으니 잘 알아 두어야 해. 해당 구절에 나타난 인물의 심리, 인물이 처한 상황, 상징하는 것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전체 내용을 꼼꼼하게 공부하면서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와 같이 자주 출제되는 구절의 의미를 잘 알아 두어야 해.



아하 잘 알겠어요! 또 어떤 것을 알아야 하나요?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의 서술상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단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큰아들인 ‘영수’가 난쟁이가 가족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으며, 상징적, 반어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 또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어야 해. 이 작품이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잃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루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단다. 그 외에 ‘난쟁이’, ‘낙원구 행복동’, ‘철거 계고장’ 등의 소재의 기능도 잘 알고 있어야 해.



또 어떤 것이 중요한가요?

이 작품은 자본주의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고, 소외된 빈민의 삶과 부유한 삶을 대조하여 제시하는데, ‘풀 냄새’-‘고기 굽는 냄새’와 같이 대조적인 소재를 활용하고 있지. 또한 동화적인 분위기의 제목과 달리 산업화 사회에서 억압당하는 약자의 비극적 삶을 제시하여 부정적인 사회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단다. 특히 작품의 제목에 나타나는 ‘작은 공’은 ‘난쟁이’의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데, 공을 쏘아 올려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희망의 좌절을 암시하고 있단다.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분석

1. 철거 계고장을 받게 된 난쟁이 가족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 도시 빈민층, 산업화 사회에서 억압받는 인물, 우리 사회의 소외되고 가난한 계층을 상징함. 작가는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상징적이고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사회적 약자의 비극성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함.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소외되고 억압받는 사회적 약자를 상징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사회의 잘못된 시선 비판 →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적인 면은 도외시함. **해당 구절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사람들의 편견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큰 아들인 '영수': 1인칭 주인공 시점.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서술자가 자신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고백하여 인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시점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도시 빈민층)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경제적으로 넉넉한 삶)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난쟁이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표현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빈민층은 '없는 자'의 공간으로 경제적 궁핍을 상징하는 '지옥'으로 표현되어 있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매일의 삶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난쟁이 가족의 고통스러운 삶을 비유한 표현②)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뒤에 제시될 사건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를 회상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 : 대조적)

▶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쟁이 가족

“**통장**(행정 구역의 단위인 통(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난쟁이에 가족에게 닥친 현실을 단적으로 표현함.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 난쟁이 가족이 처한 어려움. 계고장: 행정상의 의무 이행을 재촉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나'의 가족에게 희망과 절망을 안겨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소재이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난쟁이 가족'의 상황과 이시영, 「공사장 끝에」에 나타난 상황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살던 곳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예요.”

“**기어코 왔구나!**”(철거 계고장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어머니가 말했다.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철거 계고장이 언젠가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임을 예견함.)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에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두어 개와 졸인 감자**.(빈곤한 밥상: 가난한 집안 형편을 짐작하게 함.)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천천히 읽었다**.(어머니가 문맹임을 알 수 있음.)

낙 원 구

주택: 444,1-

197X. 9. 10.

수신: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반어적 표현. 동네 명칭과 실제 삶의 괴리를 통해 난쟁이 가족의 참혹하고 빈곤한 삶을 강조함. **작품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난쟁이 가족의 처지와는 상반된 의미를 지닌 지명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강조한다.'**가 옳은 선지로 '낙원구 행복동은 도시 빈민 주거지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철거민들의 소망이 반영된 장소이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46번지의 1839 김불이 귀하

제목: 재개발 사업 구역 및 고지대 건물 철거 지시

귀하 소유 아래 표시 건물은 주택 개량 촉진에 관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행복 3구역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주택 개량 재개발 사업 시행 조례 제15조,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X. 9. 30.까지 자진 철거할 것을 명합니다**.(철거 계고장의 핵심 내용) 만일 위의 기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강제 철거하고 그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빈민층에게 가해지는 폭력)

철거 대상 건물 표시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의 1839 구조 건평 평

끝.

낙 원 구 청 장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산업화를 상징함.)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 난쟁이 가족의 암담한 미래를 암시하고,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화의 횡포를 의미함. **해당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산업화의 횡포가 난쟁이 가족의 삶을 불행하게 할 것임을 표현하였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철거 계고장을 받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 → 침묵하는 난쟁이 가족과 비교됨.)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죽**(물이 밀려들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쌓은 둑)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한 어머니의 심리가 반영된 행동)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곧추세우고 앉았다. 그리고, **손을 들어 부엌 바닥을 한 번 치고 가슴을 한 번 쳤다**.(어머니의 행동을 통해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남. 집을 허물게 된 상황에 대한 절망감과 답답함.)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셋 밖에 안 되는데 수십 명이 거의 동시에 떠들어 대고 있었다**.(일이 해결되기 어려움을 나타냄. **구절에 대한 설명을 묻는 문제에서 '한자성어로 중구난방(衆口難防)의 상황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쓸데 없는 짓이었다**.(‘나’의 생각: 사회적 약자의 무력감, 상황에 대해 체념하는 태도) **떠든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이유: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야기된 문제이기 때문에)

▶ 철거 계고장을 받은 난쟁이 가족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 있는 **공고문**(널리 알리려는 의도로 쓴 글)을 읽었다. 거기에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등**(공고문의 핵심 내용)이 적혀 있었다. 동사무소 주위는 **시장 바닥과 같았다**.(소란한 상황을 비유함.) **[주민들과 아파트 거간꾼**(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들어 흥정을 붙이

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아파트 입주 공고문이 부착되면서, 이것을 읽으려는 주민들과 입주권을 사고팔려는 거간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다. 아버지는 **도장포**(도장을 돈을 받고 새겨 주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세워 놓은 **검정색 승용차**(공권력의 상징) 옆에 서 있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난쟁이 가족들이 일용직 근로자임을 알 수 있음.) 철거 계고장이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삶의 터전을 잃게 된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 있는 **부대**(포대, 종이, 피륙 가죽 등으로 만든 큰 자루)]([]: 아버지의 직업을 암시함.)를 둘러메었다. 영호가 다가오더니 나의 어깨에서 그 부대를 내려 옮겨 메었다.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의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상기된 '영희'의 얼굴을 통해 상황의 긴박함을 드러냄.) 몇 사람의 **거간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가난한 사람들은 입주권이 있어도 돈이 모자라 입주를 포기하기 때문에. **윗글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사기 위해 물려든 거간꾼들을 보니 삶의 터전을 빼앗기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것이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씁쓸했어.'**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거간꾼의 행동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소란스러운 상황과 대비되는 아버지의 정적인 모습) 우리는 아버지가 **책**(교과서 수록 부분 이후 내용에서 아버지 읽은 책이 「일만년 후의 세계」임이 나타남.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 가정교사를 하는 '지섭'이 준 책임. '지섭'은 이상주의자로 아버지를 일깨우는 인물임.)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찢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도 알 수 없었다.**(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함.)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난쟁이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라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 철거 계고장이 날아든 후 혼란한 동네의 모습

2.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 있는 **알루미늄 표찰**(그 건물의 거주자였음을 증명해 줌.)을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철거되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철거에 대비하는 어머니. **구절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생활의 의미마저 포기한 어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을 수용하는 듯한 모습이 싫어서,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진 영호의 성격이 나타남.)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집이 철거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상황을 현실적으로 인식함.) 어머니는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표찰을 빨리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 무허가 건물 표찰을 간직하는 어머니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표찰을 말없이 들여다보았다.(정들었던 집을 떠나야 하는 현실에 대한 복잡한 심정)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아끌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걱정을 안 했을 거다."(수입이 없는 빈곤한 현실)

어머니가 말했다.

"스무 날 안에 무슨 뽀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어머니)

"입주권을 팔려고 그래요?"(가난한 철거민들이 일반적으로 택하는 방법. 입주권이 도시 빈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사회적 폭력을 상징함.)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여긴 우리 집이다.”(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영호’의 저항 의지. 김영랑, 「독을 차고」의 화자가 본문의 등장인물들에게 할 수 있는 말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영호 군의 모습에서 저와 닮은 부분을 찾게 되네요.’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영호’의 태도에 대해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영호는 성큼성큼 돌계단을 올라가 아버지의 부대를 마루 밑에 놓았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길 하는 사람이 있었다.”(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의미.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남.)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 계고장을 막 읽고 난 참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 놔다니까 애긴 그걸로 끝난 거다.”(시에서 진행되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뜻. 아버지의 체념적 태도가 드러남. 정희성, 「저문 강에 삼을 씻고」와 비교하는 문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체념적 태도를 보이듯이 「저문 강에 삼을 씻고」의 화자도 체념적이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건 우릴 위해서 지은 게 아네요.”

영호가 말했다.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 철거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 철거민은 살 수 없음;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것임. 윗글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난쟁이 가족은 가난으로 인해 도시 재개발의 혜택을 입지 못하고 삶의 터전에서 비참하게 쫓겨나는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영희는 마당가 팬지꽃(순수하고 여린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 앞에 서 있었다.

“우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 오는 놈은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영호가 말했다.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법의 부조리함과 냉혹한 현실이 드러남.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그들 옆엔 법이 있다’는 말을 통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법의 비호를 받는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있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구절과 관련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것임.) 마당가 팬지꽃 앞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돌렸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 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현실에 대한 슬픔과 침울함 때문)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 어쩔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침울해진 난쟁이 가족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 냄새(도시 빈민의 삶.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난쟁이 일가의 빈곤과 가난을 상징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풀 냄새’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가 났다. 개천 건너 주택가 골목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주택가 건너편은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갈 수 있는 꿈의 공간으로 볼 수 있겠군.’이 잘못된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가 났다. 나는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에게 묻고는 했다.(의도적인 ‘나’의 질문)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고기를 먹고 싶다는 간접적 표현)

어머니는 말없이 걸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엄마, 이게 무슨 냄새지?”

어머니는 나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는 걸음을 빨리하면서 말했다.**(아이들에게 고기를 사 줄 수 없기 때문에)

“고기 굽는 냄새란다. 우리도 나중에 해 먹자.”(아이를 달래기 위한 말)

“나중에 언제?”

“자, 빨리 가자.”

어머니는 말했다.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어머니의 변명)

“거짓말!”(집안의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을 알고 있음.)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철이 없는 태도. 옷에 주머니를 달아 주지도, 돈이나 먹을 것을 넣어 주지도 못하는 가난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

어머니가 우뚝 섰다.

“너 방금 뭐라고 했니?”(아버지를 비난하는 말에 화가 남.)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경제적 풍요)을 입고 싶어.”

“빨리 가자.”(해당 구절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상대의 발화 의도를 알지만 따라줄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발화 의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를 안 달아 주지? 돈도 넣어 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 줄 게 없어서 그렇지?”(주머니에 넣어 줄 것이 없는 가난한 처지의 난쟁이 가족의 모습이 드러남.)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 돼. 악당은 돈이나 많지.”(어떤 방식으로든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싶다는 것)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제 속지 않아.”(경제적 무능력 때문)

“엄마, 큰오빠는 말을 안 들어.”

영희는 부엌문 앞에 서서 말했다.

“엄마 몰래 또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대. 나는 안 갔어.”

어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다. 나는 영희를 흘겨보았다. 영희는 또 말했다.

“엄마, 큰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었다고 말했더니 때리려고 그래.”

영희는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는 영희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영희를 풀발으로 끌고 들어간 것이 잘못이었다. **영희를 때려 주고 나는 후회했다. 귀여운 영희의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영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과거를 회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도시 빈민의 삶 ↔ : 자본과 권력이 있는 이들의 삶. **대조적인 삶을 나타내는 소재나 도시 빈민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삶을 나타내는 소재를 찾아 서술하라는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각 소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해당 소재에 대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 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의 모습

3. 오랜 세월 동안 가난을 대물림한 난쟁이 가족

아버지는 철거 계고장을 마루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철거 계고장에 별다른 관심이 없음.) 우리는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바라지는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다. 고생도 충분히 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다.**(난쟁이 가족의 가난한 삶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음. **해**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지문 확인

1. _____을 받게 된 난쟁이 가족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쟁이**(_____를 가진 인물, _____, 산업화 사회에서 _____받는 인물, 우리 사회의 _____되고 가난한 계층을 상징함. 작가는 난쟁이 가족의 가난과 사회적 소외를 _____이고 _____으로 보여 주고 사회적 약자의 _____을 강조하기 위해 아버지를 난쟁이로 설정함.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인물로 _____되고 _____받는 사회적 _____를 상징한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난쟁이’의 상징적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였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사회의 _____시선 비판 →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_____인 면은 도외시함. **해당 구절에 대해 묻는 문제에서 ‘아버지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 사람들의 _____에 대한 ‘나’의 비판적인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나**(큰아들인 ‘영수’: _____시점.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서술자가 _____의 삶과 생각을 솔직하게 _____하여 인물의 목소리를 _____하게 느낄 수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시점을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는 아버지·어머니·영호·영희, 그리고 **나를 포함한 다섯 식구**(도시 _____층)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 **천국**(_____으로 _____한 삶)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난쟁이 가족의 _____스러운 삶을 _____한 표현①). **작품에 대한 감상을 묻는 문제에서 ‘난쟁이 가족이 살고 있는 빈민촌은 ‘_____’의 공간으로 _____을 상징하는 ‘_____’으로 표현되어 있군.’이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 보지 않은 날이 없다.**(매일의 삶이 _____스러웠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난쟁이 가족의 _____스러운 삶을 _____한 표현②)과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끊임없이 _____을 경험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_____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의미)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독자의 _____을 유발하여 독자로 하여금 뒤에 제시될 사건에 _____하도록 하고 있음. 과거를 _____하는 이야기가 뒤에 이어질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음.)

(_____ ↔ _____ : 대조적)

▶ _____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_____가족

“**통장**(행정 구역의 단위인 _____(統)을 대표하여 일을 맡아보는 사람)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 마루 끝에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고장**(난쟁이에 가족에게 닥친 _____을 _____으로 표현함. _____을 일으키는 소재: 난쟁이 가족이 처한 _____.

계고장: 행정상의 _____이행을 _____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에서 “‘나’의 가족에게 희망과 절망을 안겨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소재이다.’가 옳지 않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또한 ‘난쟁이 가족’의 상황과 이시영, 「공공장 끝에」에 나타난 상황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에서 ‘살던 곳을 _____게 될지도 모른다는 _____에 휩싸여 있다.’가 옳은 선지로 출제되었습니다. 해당 소재의 의미를 묻는 문제는 매년 출제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다른 작품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예요.”

“**기어코 왔구나!**”(_____이 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어머니가 말했다.

2024
고2 문학
비상

2024 고2 문학 비상 | 2(2)(2)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제재 개관

갈래	현대 소설, 연작 소설
성격	사회 고발적, 비판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재개발 지역(낙원구 행복동)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제재	난쟁이 가족의 궁핍한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궁핍한 삶과 좌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빈민의 삶을 다룸. 상징적, 반어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2.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달나라'를 꿈꾸는 이상적 인물임.
어머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며, 정이 많음.
영수	현실적이고 주관이 뚜렷하며 냉정함.
영호	다혈질이며 현실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음.
영희	순수하면서 여린 모습을 지님.

3.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아버지	환상으로 도피함. (현실 순응적)
어머니	무기력하게 순응함. (현실 순응적)
영호	철거를 거부함. (현실 저항적)

4.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

공간	철거민 주거지	개천 건너 주택가
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옥 푼 냄새 주머니 없는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국 고기 굽는 냄새 주머니가 달린 옷
의미	소외되고 가난한 삶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

TEST 2단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제재 개관

갈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설
성격	사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동)
시점	1인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시점
제재	난쟁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삶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의 삶을 다룸.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3.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아버지	환상으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현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어머니	무기력하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현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영호	철거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현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적)

2.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달나라’를 꿈꾸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인물임.
어머니	남편과 자식을 위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며, 정이 많음.
영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 뚜렷하며 냉정함.
영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며 현실에 대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가지고 있음.
영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면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모습을 지님.

4.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

공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거지	개천 건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냄새 • 주머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굽 는 냄새 • 주머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옷
의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한 삶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삶

TEST 3단계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1. 제재 개관

갈래	□□ 소설, □□ 소설
성격	사회 □□적, □□적
배경	1970년대, 서울의 □□□ 지역(□□구 □□동)
시점	1인칭 □□□ 시점
제재	난쟁이 □□의 □□한 삶
주제	도시 빈민들의 □□한 삶과 □□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0년대 □□□□ 과정에서 삶의 기반을 빼앗기고 몰락해 가는 도시 □□의 삶을 다룸. • □□적, □□적 표현으로 주제를 드러냄.

3.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

아버지	환상으로 □□함. (현실 □□적)
어머니	무기력하게 □□함. (현실 □□적)
영호	철거를 □□함. (현실 □□적)

2.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달나라'를 꿈꾸는 □□□ 인물임.
어머니	남편과 자식을 위해 □□하며, 정이 많음.
영수	□□□이고 □□이 뚜렷하며 냉정함.
영호	□□□이며 현실에 대해 □□을 가지고 있음.
영희	□□하면서 □□ 모습을 지님.

4. 작품에서 구분한 공간의 차이

공간	□□□ 주거지	개천 건너 □□□
공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냄새 • 주머니 □□ 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굵는 냄새 • 주머니가 □□ 옷
의미	□□되고 □□한 삶	□□하고 □□□ □ 삶